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ACA-9) 참관기(2)

After Visiting The 9th 'Asian Congress of Architects'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술토론회 / 이필훈 (본협회 국제위원)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교육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 이인호 (본협회 국제위원)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생대회 ① / 김홍일 (본협회 국제위원)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생대회 ② / 김형우 (동국대 건축공학과 4년)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술토론회

Programme Day 1 (9월 7일)

Session 제목 : Asia : World Trends
 Keynote Speaker : Sir Michael Hopkins / United Kingdom, Cecilia oh / Malaysia, Tay Kheng Soon / Singapore

Malaysia 건축가이며 ACA-9의 Convenor인 David Teh의 사회로 Session은 시작되었다.

세션의 주제는 '아시아 건축'이었다. 작년 ARCASIA의 주제가 '기술과 전통'이었던 것에 비해서 지역성을 좀더 강화한 주제였다. 주지하다시피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똑같이 IMF의 상황을 겪었고 IMF의 권고 사항을 거부하고 자국의 방식으로 IMF의 터널을 빠져 나오고 있는 국가이다. 영국의 Hopkins경을 제외한 말레이시아의 Cecilia oh와 Tay Kheng Soon은 ASIA의 역사적 문화적 특성을 배경으로 할 건축의 Globalisation을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들은 '우리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80년대 말 90년대 초의 한국의 국수주의적 세계관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환경과 개발에 관한 논의 역시 인간과 세계에 대한 공통적, 일반적 접근보다는 자국우선 주의와 '우리식 해법'을 주장했다. 어떤 점이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존재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찾기 어려웠고 ASIA 국가들의 모임을 통해 공통점을 추출해 내자는 노력보다는 자국의 입장을 옹호하고 내세우며 자랑하려는 국가주의적 입장이 앞서 있는 것으로 읽혀져서 'Globalisation'이라는 단어가 계속 어색하다는 느낌이었다.

Programme Day 2 (9월 8일 Am 9시)

Ken Yeang의 Session 제목 : Trends In Design (각국의 지난 10년간 설계 경향)
발표자 : 인도 / Vinary Parelkar, 한국 / 이필훈, 필리핀 / Francisco T. Manosa, 중국 / Tang Hua, 싱가포르 / Richard K F Ho, 태국 / Vimolsiddhi Horayangkura, 홍콩 / Anthony H H Nge

7개국의 발표자가 최근 10년 동안 자국의 설계 경향에 대해 발표했다. 대부분 자국이 갖고 있는 문제점과 특수성을 피력하고 이에 따른 건축적 해법을 준비해온 Slide와 함께 발표했다.

인도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통건축을 근간으로 하는 독특한 형태의 현대건축물이 주류를 이루었고 한국은 전통이란 화두에서 조금 자유스러워지고 다양해진 형태들을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과 연계시켜 발표했다. 싱가포르의 과밀화된 현재의 상황에서 건축가가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진지한 의문을 제시했고 홍콩은 홍콩전체의 미래적 Master Plain을 발표했다. 중국은 70~80년대 한국의 건축적 상황과 유사한, '전통과 현대사이에서 우왕자왕하는 건물들을 '전통의 계승'이란 표현으로 발표했으며 필리핀은 열대지방의 지역성에 맞는 건물과 조금은 어색해 보이는 현대건축물을 소개했으며 태국은 최근 10년 동안 국내에서 시상된 건축물을 배경으로 어떻게 Globalisation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결국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각 나라별로 자신들의 identity를 확립하려는 노력들이며 그 노력은 집단적 identity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고 동일한 인간의 가치를 인정하는데서 출발할 수 있는 Globalisation과는 그 방향이 다른 것이었다. Asia의 건축은 아직 형태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그 형태적 아름다움의 뿌리는 각국의 '전통적 형태'라는 등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결국 Globalisation은 각국의 이해관계가 씨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정치적 상황'에서만 가능하며 유럽 같은 문화적 공감대를 형성하기엔 아직 많은 면에서 성숙도가 떨어져 보여 안타까웠다.

Programme Day 3 (9월 9일)

Session 제목 : Beyond The State - 현실 또는 상황을 넘어
Keynote Speaker : Hong Kong / Rocco Yim, U.K. / Mark Goulthrope, Korea / 류춘수, 일본 / Tetsuo Furuichi, 오스트레일리아 / Gabriel Pool, U.K 말레이시아 / C J Lim

각 작가별로 자신의 건축관과 대표작을 발표하는 Session으로 학생을 포함한 많은 청중이 참가하여 한국에서 몇몇의 관계자만 참석했던 Session과는 다른 분위기를 연출했다.

홍콩의 Rocco Yim : 대형 Project에서 소화하기 쉬운 틈새공간 만들기, 휴먼스케일화된 공간창조, 전통적 형태가 아닌 전통적 재료의 특성을 이용한 새로운 형태창조를 주제로한 발표를 했다.

영국의 Mark Goulthrope : Computer가 만들어내는 선형, 곡면 등을 이용하여 이제껏 만들 수 없었던 3차원 곡선의 형태, 공간 창조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매우 신선한 건축작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전체에 인간과 Context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형태적 조각만 있다는 질문과 비평이 따랐다.

한국의 류춘수 : 전통과 기술이라는 주제로 전통적 형태를 유추해서 만든 건물을 현대적 기술로 발전시킨 예들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암암리에 의도하고 있는 방향과 유사해서인지 특별한 질문은 없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좀 더 조직적이고 심도 깊은 발표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일본의 Tetsuo Furuichi : 환경친화적 재료의 사용, 햇빛과 바람의 수용 등 현재 논의되고 있는 ecology적 측면이 고려된 Project들을 소개했는데 건축에 대한 Asia적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추세에 동조해서 한 발 앞서 나가는 일본의 건축적 일면을 볼 수 있었다.

호주의 Gabriel Pool : 호주에서 주택만을 전문으로 설계한 Gabriel은 경사지에 토목공사를 거의 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구법을 근간으로한 자사의 프로젝트들을 소개했는데 매우 가볍고, 경제적이며 주변환경과 잘 조화된 건물들이었다. 싱가포르의 건축가인 Richard는 이런 건축적 방법이 싱가포르 같은 고밀도 주거에서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Gabriel은 자신의 건축

은 세계적이 아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건축이라는 답으로 깊은 논의를 비껴갔다.

영국. 말레이시아의 C J Lim : 영국에서의 건축수업을 바탕으로 AA스쿨을 비롯한 여러 학교에서 건축을 가르치고 있는 젊은 건축가 C J Lim의 발표는 지어져 있는 집이 아닌 Paper Architectural Style의 Presentation이었는데 현실적인 건축적 접근이기보다는 자신의 눈으로 본 미래건축이었고 건축가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는 너무 편협한 AA School적인 접근방법이었으며 이로인해 많은 공격적 질문을 받았다.

Tradition, Identity, Sustainability, Ecology, globalisation, 위와 같은 단어들이 이번 Session의 주제처럼 다루어졌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하나의 용광로 속에 다 용해될 수 있는지 혹은 용해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는 계속 남아있다. 실제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조차 모색되지 않았다. 건축이 갖고 있는 다양성에 대한 이해 - Globalisation이라는 주제아래 Session을 계속했지만 오히려 지역, 역사적 특성에 따른 고유의 건축적 전통에 관한 논의가 부각되는 Session이었다.

Session을 참가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은 내용적 측면 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형식적 측면이었다. 학생, 교수, 건축사가 일체화되어 적극적으로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건축사협회의 임원들은 모두 자국에서 존경받는 건축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비록 한국보다 다른 부분에서는 후진국일지 모르는 아시아권의 많은 나라들이 건축에서만은 우리보다 훨씬 앞선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의 문화, 사회적 상황으로만 돌릴 수 없음을 그간의 건축사로서의 사회 및 단체에 대한 개인적 참여의식부족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필훈 / 본협회 국제위원)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교육위원회 회의 및 워크숍

장소 : 말레이시아, Kuala Lumpur, Shangrila Hotel

일시 : 2000. 09. 05 ~ 2000. 09. 06

Chairman : Prof. Dato' Parid Wardi bin Sudin, 말레이시아, PAM 협회장

2000년 9월 5일과 9월 6일 양일간 ARCACIA 교육위원회 Meeting과 Workshop이 말레이시아 쿠마라룸푸르 샹그리아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Council Meeting에서 채택된 교육관련의제를 다룬 이번 교육위원회 Meeting은 WTO 체제하의 Service시장 개방에 따라 UIA 교육 인증기준에 대비하고 있는 한국의 건축 교육실태를 비추어 볼 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시아 각국의 건축관련협회들은 다국간 Service 시장개방에 의한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응함과 동시에 범아시아권내에서도 각국간의 상호교류를 활성화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라 참석자간에 심층적인 토론이 있었다. 이틀간에 토의되었던 회의 의제 및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회의주제

- 1) 개회사
- 2) Country Reports 제출
- 3) Proposal for the setting up of CODHASIA
- 4) ARCASIA College of Architecture

ACAE WORKSHOP

- 1) Election of a new Chairman
- 2) Studio Teaching Methods in Schools of Architecture
- 3) ARCASIA College of Architecture
- 4) CODHASIA

참석국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 싱가포르, 일본, 태국, 홍콩, 중국, 마카오, 파키스탄, 인도네시아 이상 13개국, Observer : 호주

ACAE MEETING

Tue. 5. Sept. 2000 오후 02:00 ~ 05:30

1.0 Introduction , Welcome by Chairm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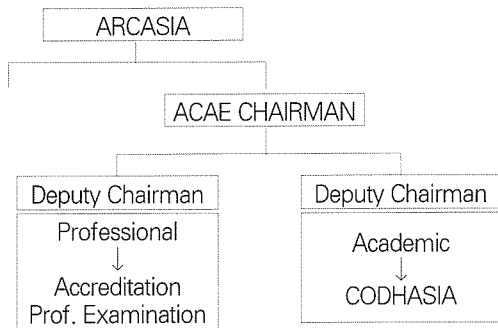
- 1) 의장의 인사말과 Agenda, Workshop 에 대하여 설명
- 2) 신임 Chairman 및 Deputy Chairman 두 명을 선출하기로 함.

2.0 Country Reports 제출

- 1) 한국, 일본, 필리핀, 인도네시아, 홍콩 이 상 5개국
- 2) 각국보고서 (별첨 : 원본)

3.0 Proposal for the setting up of CODHASIA

- 1) 필리핀은 CODHASIA 설립에 관한 제안서 제출 (별첨 : 복사본)
- 2) CODHASIA 제안은 WORKSHOP에서 토론하기로 함
- 3) ARCASIA College of Architecture 및 CODHASIA 활성화에 따른 위원회의 조직구분 제안



4.0 ARCASIA College of Architecture

- 1) 위원장의 Architecture School 설립의 문제점 및 새로운 제안
- 2) 태국과 인도가 자국 내에 학교설립 유치를 위한 제안서 제출
- 3) 학교설립에 따른 재정적 문제점 해결이 선결되어야 한다. 학생들의 학비충당, 교수들의 확보의 어려움 (Wardi)
- 4) 교과과정의 범위는 학부, 학부 + 대학원, 대학원 등의 형태가 추진될 수 있으나 학부 또는 학부

+ 대학원 과정은 경제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각국의 특색이 있으므로 어려운 문제점이 많으며 기존 대학들과 차별 또는 형평성을 고려하면 Research Institute가 바람직하겠다. (Wardi)

5) Post - Graduate Program을 위한 Institute가 좋겠고 Research Program을 활성화하고 국가간 networking을 통한 교육으로 재정적 문제와 지역적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으며, 또한 학교설립국가는 특별한 준비가 필요없다. 학과정은 다양한 Program을 채택하고 이 Program은 ARCASIA 전체 국가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싱가포르)

6) 교과과정이 중요하므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해야 하고 이 교과 과정은 ARCASIA 국가들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인도)

7) Asian Context 및 Paradigm에 적합한 교육이 되어야 하고 학술적인 과정과 전문과정(Academic / Professional degree)을 제안. (인도네시아)

8) 기부금이 학교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인도)

9) International 또는 Global Standards의 기준이 무엇인가 (필리핀)

10) 학부의 교과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다. (교양과목, 선택과목등) 예를들어, 몽고 학생이 타국에서 교육 받는다면 몽고의 문화, 환경, 건축재료, 기후가 다르므로 학부에서의 교육이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고정적이고 획일적인 교과과정을 배제한다. (Wardi)

11) 미국의 SAIAC, 영국의 AA School과 같은 작은 규모의 학교형태 제안, 계속 교육제도 제안 (일본)

12) 건축학교는 학점 취득 및 인증이 중요하며, 원활한 학점취득을 위해서는 Program의 다양화로 학생들의 교과정 선택이 용이하고 특히 다양한 Design Course의 Program을 마련하여야 한다. (싱가포르)

13) 기존 대학내에 특별과정으로 Post-graduate program 과정을 두어 기본적인 Course를 마친 학생들에게 연구활동 자격을 부여하고 연구 활동후에 Degree를 수여 하는안 제의

14) ARCASIA는 학교설립 및 유지에 재정적 도움을 줄 수 없다. 학교 설립국가의 규정 및 법절차에 의한 교과과정이 된다면 ARCASIA는 학위를 인정할 수 있다. (Wardi)

15) 한국학부의 특성상 현재로서는 학부형

태의 건축학교 참여는 문제가 있다. Post-graduate program의 Research 위주의 Institute가 설립되면 연구 활동으로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 한국의 학부제와도 충돌이 없을 것 같다 (한국)

16) 각국 대학의 Research 현황

① 일본 - Practice 보다는 Research 가 많다
 ② 한국 - 한국도 일본과 같이 Practice 보다는 Research가 많으며 Research가 기술분야(구조, 환경, 도시등)에 편중되어 있다.

③ 중국 · 태국 - 국가재원에 의한 Research 가 많다.

④ 인도 - 에너지, 주택문제의 Research가 활성화되어 있다.

⑤ 기타 국가들 - 전반적으로 타 분야에 비하여 Research 활동이 많다.

Workshop

Wed. 6. Sept. 2000 오전 09:00 ~ 오후 01:00

1.0 Election of a new Chairman

1) 각국의 추천에 의하여 후보들이 등록되고 다수결로 위원장을 선출

2) 새로운 조직표에 의하여 Chairman 밑에 Academic & Professional Deputy Chairman 두 명을 선출

• Chairman : Yolanda D.Reyes, FUAP University of Santo Tomas 학장

• Deputy Chairman (Professional) : George Kunihiro, JIA Kokushikan University 조교수

• Deputy Chairman (Academic) : Dr. Milton Tan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교수

Workshop은 3개 주제에 의하여 각국 위원회 참석자들을 3개의 그룹(7~8명)으로 나누어 토론을 한 후 교육위원회 전체가 다시 모여 주제들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토론회는 아이디어 제안, 정보 및 각 주제들의 현실적 문제점들을 도출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한국측에서는 각주제그룹에 이필훈 (주)태두종합건축사사무소, 이인호 (주)이래종합건축사사무소, 조성중 (주)일건건축사사무소등이 토론에 참석하였다.

2.0 Studio Teaching Methods in School of Architecture

Architecture

1) Studio 교육이 Visual Design과 User Oriented Design중 어느 부분에 치중하는가?

2) Studio에서의 Evaluation 방법 / Identity란 무엇인가?

3) Studio 학생이 많을 때의 교육방법, Group 교육과 One to One 교육의 문제점

4) Studio 교육은 현장방문 또는 실습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5) 문화, 사회, 철학, 정치와의 관계

6) Studio 교육방법론에 있어서 Project Base 또는 Problem Base

7) Social Science인가 Art Object 인가

8) Studio Design 교육을 시작하는 적절한 시점이 언제인가 (Freshman, Junior...)

9) Skill, Theory, Practical 교육의 병행 / Project Issue의 이해

10) Studio Design 교육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 철학적 근거

11) 심미안적 / 도덕적 교육 필요

3.0 ARCASIA College of Architecture

1) 태국과 인도 건축사협회에서 제안한 건축학교 설립조건을 무시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있었다.

2) 건축학교 설립의 확고한 취지 및 당위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3) 학교 설립시 재정적 지원에 대한 문제점, 학생들이 충당할 학비마련의 어려움

4) 특정국가에 설립시 발생하는 학생, 교수 교류와 교과정 인정, 아시아 각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역사, 문화, 종교, 지형, 기후등) 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에 대한 대처 방안

5) 학교의 규모 및 교과과정 (학부, 대학원 등) Research 과정을 주요 교과과정으로 제안

6) 졸업생들에게 부여될 자격, 학위에 대한 인증

7) 참여 학생들 및 교수들의 자격 (각국의 학부제와 교과과정이 다를 경우)

8) Jamboree 대회와의 연계

9) 식당 메뉴와 같은 다양한 Curriculum으로

로 각 나라의 학제와 일치하는 Program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

4.0 CODHASIA (Conference of Deans and Heads of Architecture School in Asia)

1) 필리핀 건축사 협회에서 1994년 마닐라에서 제1회 아시아 건축대학장 협의회 구성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2) 우선 Dean 또는 Head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토론한 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자국의 학제에 대하여 설명하고 Dean 또는 Head의 자격에 융통성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함.

3) Representative 자격요건

① Dean 또는 Head는 각 건축대학 또는 건축과의 대표이어야 한다.

② Registered Architect / Design Professor

③ Head of Institution who are in Architecture

④ Architect, Member of Institute

4) 한국은 건축과 Director가 Design 전공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주로 젊은 교수가 Director가 되기 때문에 의사결정 재량권이 취약하여 Design 교수라 하더라도 대다수가 KIRA의 Member가 아닌 현실을 설명하였다.

5) 한국과 일본의 학제사정을 감안할 때 각 대학의 Design 교수를 대표할 사람이면 가능함

6) Convenor는 Host Country가 맡는다.

7) 교육위원회내의 Academic Chairman은 CODHASIA Chairman 이 될 수 있다.

8) 2001년 Singapore Forum중에 제1회 CODHASIA Working Group Meeting을 할 것이며 각국은 대표 1명씩을 보낼 것을 제안

9) Working Group Meeting을 대비하여 Steering Meeting을 올해 안에 열 것을 제안하고 이때 Final Document를 작성하기로 함.

10) 인도대표가 2000년 12월 말에 뉴델리에서 열리는 자국 학생 및 교수 Jamboree 대회에 운영위원회를 유치하겠다고 제의하였다.

11) 각국 대표들은 인도가 운영위원회 Host Country로 잠정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새로 선출된 Yolanda D. Reyes가 공식적인 Letter를 보내기로 하였음.

후기

ARCASIA 건축대학설립문제는 재정적 한계뿐만 아니라 각국의 문화적, 사회적 차이와 경제적 격차로 실행에 옮기기까지는 각국 협회간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정확보가 선결되어야 하며 Host Country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는 형태의 학교설립이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 어떤 형태의 ARCASIA 건축학교가 설립되든 한국이 이 Program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영어사용교육이 가능한 System을 갖추어야 하고, UIA교육인증기준뿐 아니라 아시아 각국의 교육 System에도 통용될 수 있는 교육제도를 시급히 갖추어야 할 것이다.

Codhasia 위원회 참여에도 현 우리의 교육 제도내에서는 변칙적인 참여가 불가피하다. 참석자 자격요건이 건축대학장 또는 건축과의 Head로서 건축설계 실무에 참여하는 Design 교수로 되어있다. 한국의 대학들은 학위주의 교수임용조건과 교수들의 실무참여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현실에서는 Codhasia 참석자들이 갖추어야 할 자격 요건에 미흡한 상태에서 참여할 수 밖에 없다.

끝으로 현재 3개 단체로 분리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은 건축설계분야 주도의 통합된 단체로 재탄생 해야한다는 필요성을 통감하며 현실적으로 통합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3 단체 상호간 긴밀한 학구적 협력이 요구된다. 전면적인 설계시장 개방을 앞둔 시점에 우리 건축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다면 세계 시장에서는 물론이고 아시아권 내에서조차도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 분명하다. (이인호 / 본협회 국제위원)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생대회 ①

제 9차 아시아건축사 대회가 MALAYSIA Kuala Lumpur에서 열리는 동안 약 30km 떨어진 샤알람 (Shah Alam) 이란 소도시에 위치한 마라 공과대학 (Universiti Teknologi MARA, 이하 UTM)에서 9월 5일부터 9일까지 5일동안 ARCASIA 16개 회원국에서 참여한 400여 학생들의 잔치가 벌어졌다. 이번 학생대회(STUDENTS JAM-BOREE)의 주제는 "AKAR UMBI"라는 말레이어로 "근원", "뿌리", 등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21세기 지구 공동체로서 세계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서로다른 문화

의 조화와 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 있다. ARCASIA 회원국에서 약 150명, 주체국인 말레이시아에서 약 250명으로 모두 400 여명의 학생이 참여를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김형우, 이성철 학생을 대표로 선발하여 국제위원인 필자와 함께 3인이 참석을 하였다. 다른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수가 참여하여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김형우군의 작품이 150여 참가작품에서 2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어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다. 준비과정의 세부적인 사항은 자세히 모르나 외국학생의 공항 미중부터 학생들의 장소이동, 연회, 파티 등의 모든 행사의 진행이 철저하게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져 학생자치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사였다.

9월 5일 : 비행기가 9시간이나 늦게 출발하여 5일 새벽에 쿠알라룸푸르 공항에 도착을 하였는데 주최국 학생 3명이 우리를 샤 알람의 숙소로 데려가기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숙소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리조트 호텔로 거실과 3개의 방이 있는 유니트에 2명의 일본학생, 1명의 인도학생과 함께 우리 3명이 합류를 했다. 오전에 참가자 등록을 위해 학교에 도착을 하니 환영의 의식으로 말레이시아 전통 나막신으로 갈아신은 다음 꽃잎을 띄운 물을 발에 끼얹어 주었다. 이는 몸을 깨끗이 하여 정성된 마음으로 참여를 하게하고 행사기간 내내 건강과 행운을 빌어주는 의식이라 한다. 각국의 학생들이 계속 도착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말레이시아 전통놀이에 참여하기도하고 학교를 구경하며 보냈다.

오후에는 차코라마(Chacorama)라는 행사가 있어 참여를 했다. 차코라마는 음악을 연주 하면 학생들이 이 연주를 들으며 그느낌을 목탄으로 표현하는 이벤트였다. 그림을 다 그린후에는 음악에 맞추어 춤도추고 그곳의 민속악기도 연주해보는 기회도 가졌다. 저녁에는 공식 개막 행사(Opening Ceremony)에 참가를 했다. 이 행사에는 ARCASIA 에 참가한 각국 건축사들이 참가했고, 축하 연설과 강연 그리고 학생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며 만찬을 했다.

9월 6일 : 아침에 학교에 모여 편성된 조를 확인하여 각조의 work-shop에 참여를 했다. 주최측에서는 400여명의 학생들이 동시에 work-shop 에 참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여러나라 학생과 말레이시아 학생을 골고루 섞어 한조가 약 80명 정도가 되게 5개 조로 편성을 해놓았다. 조에 따라 work-shop의 내용과 건축방문의 순

서가 달랐다. 김형우 군이 속한 C조의 경우 강연을 듣고 주제를 토론했고, E조의 경우 연극에 대한 강연후 조별로 즉석극을 만들어 공연을 하기도 하였다. 오후에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이슬람사원 등의 건축물을 조별로 방문하였다. 저녁에는 서로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없애고 친해진다는 의미의 "Ice Breaking Night" 파티에 참여했다. 공대의 건축과 건물은 "□" 자건물 두채를 서로 엇갈려 이은형태로 두 개의 중정이 있고, 그중 하나는 행사를 위한 반원형극장으로 만들어 놔다. 파티는 이곳에서 진행되었다. 말레이시아의 전통혼례식을 재현하고 각국의 학생들이 하객이 되어 신랑 신부에게 돌아가며 축하를 하는 형식을 취하면서 사이사이 자연스레 축하 노래와 음악 연주, 춤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한미당이 되었다.

9월 7일 : 오전에는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ARCASIA 본회의가 열리는 Kuala Lumpur Shangri-La 호텔로 이동을 하여 개막식에 참여를 하였다. 개막식 후에는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건설에 참여한 세계 최대높이의 KLCC 타워를 비롯하여 시내관광을 하였다. 저녁에는 본회의의 Friendship Night 에 참여를 하여 한국의 건축사들과 같이 여흥을 즐기고 다시 KLCC 타워의 야경을 구경하였다.

9월 8일 : 이슬람 사원 및 말레이시아 정부 홍보관이 있는 Putrajaya지역을 방문하였다. 이슬람 사원은 복장에 대한 규제가 심하였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입장할 수 없었다. 이 곳의 사원은 호수옆에 새로 지어진 사원으로 약간의 위락시설도 포함하고있다. 정부 홍보관에서는 건축과 학생들이 그곳을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한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해 주어 학생들에게 환영 받았다. 특히 이날은 말레이시아 방문 기간중 유일하게 비가 온 날이었는데, 그곳 학생들 말로는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면 상당한 양의 비가 온다고 한다. 저녁에는 각국문화 홍보의 밤으로 참가한 학생들이 준비해 온 공연을 발표하는 시간이었다. 국가별로 째즈 댄스를 준비해 온 팀, 전통노래를 준비한 팀, 연극을 준비해 온 팀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그러나 한국 학생들은 사전 정보가 없었고 인원수가 부족했던 관계로 그저 관람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9월 9일 : 오전에는 본회의에 유명건축가들의 강연이 있었고, 학생공모전 발표 및 시상이 있었기 때

문에 모두 Kuala Lumpur 의 Shangri-La 호텔로 이동을 하였다.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던 수상작 발표에서 싱가포르 학생이 대상을 차지했고, 한국의 김형우군이 아쉽게도 2등에 해당하는 Honorable mention을 받았다. 내용이 좋아 은근히 대상도 가능하다는 기대를 했는데 아쉬움이 너무 많았다. 아마도 ARCASIA 회원국속의 한국의 위상을 나타내는 것 같다. 공식 행사가 끝난 후 외국 학생들 위주로 쿠알라룸푸르 시내 관광에 나섰다. 미처 친구들에게 줄 기념품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들. 말레이시아에서 뭔가 기념이 될만한 것을 남기려는 학생들 모두 낯선 물건이 가득한 시장에서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저녁에는 행사의 마지막 파티가 있었는데, 서울로가는 비행기 시간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아쉬움을 남기며 서울로 출발하였다.

아시아의 여러나라들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은근한 우월감을 갖고 참석을 했던 우리는 건축에서는 우리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려웠다. 과정이 어떻든 이미 그들은 국제적인 교류가 활발했고 건축사를 길러내는 전문교육제도가 확립된 상태였다. 말레이시아 학생들의 행사 진행 과정은 과연 우리나라에서 학생들만의 조직을 가지고 국제적인 행사를 그들 만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참가인원이 부족하고 사전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김형우군의 작품이 상을 받아 최소한의 체면을 유지했다. 우리도 더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국제 행사에 참여하여 외국의 학생들과 교류를 하고 국제 감각을 익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홍일 / 본협회 국제위원)

제9차 아시아건축사대회 학생대회 ②

벌써 9시간째이다. 낯선 곳으로 날아간다는 설레임도 계속되는 출발시간 연착에 사라져버리고, 이젠 그저 졸린 눈으로 멍하니 시계탑만 바라보고 있다. 비행으로 5시간, 서울과의 시간차는 30분밖에 되지 않는 곳인데, 너무나 먼 곳을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생각이 든다.

새벽 3시,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 옛그제부터 미리 준비해두었던 '와아!' 하는 낯선 풍경에 대한 감탄사는 모두 잠기고 그저 차분한 시선으로 창 밖을 지나가는 야지수들을 바라보고 있다.

예정보다 훨씬 늦게 일어난 우리는 서둘러 옷을 입고 식당으로 향했다. 아침에서야 얼굴을 보게된 룸메이트들과 다소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바로 식사를 시작했다. '식사나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마음을 졸이며 건성으로 먹었던 아침이 무색하도록 버스는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이것이 Malaysian Time 줄을 그때는 몰랐었다. 미리 알았으면 5박 6일내내 마음 편히 지냈을 텐데)

버스로 도착한 곳은 이번 학생 잼보리에 주 행사장으로 쓰일 UiTM(University Technology MARA)의 야외 극장이었다. 들어가는 학생들의 신발을 벗기고 그들의 전통 나막신을 신긴다. 그 위에 꽃잎을 띄운 물을 붓으며 무엇인가 중얼거리는데, 그 순간 '아 이곳이 정말 말레이시아구나!' 비로소 낯설음과 새로움에 대한 인식이 활동을 시작했다. 스피커에서는 연신 흥겨운 그들의 가요가 흘러나오고 하나 둘씩 모여드는 학생들의 이야기 소리, 행사 진행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UiTM의 학생들..., 그들의 배경이 되는 중정의 넉넉함이 여유롭다. 분위기가 타달까? 어느새 우리의 일부가 되어 말레이시아 전통 놀이를 따라하고 있다. 마치 오래 사귀었던 친구들처럼, 그렇게 서로에게 익숙해지고 있다.

'차코라마'라 했던가? 음악에 맞춰 그 느낌을 도화지에 목탄으로 표현하는 의식(?)은 오전 행사의 절정을 이루었다. 그림을 그리며 리듬에 몸을 흔드는 사람, 그림은 뒷전으로 하고 춤추기에 바쁜 친구, 이제는 익숙하다 못해 서로 얼싸안고 흥겹게 행사장을 도는 녀석들.

'ARCASIA STUDENTS JAMBOREE'라는 다소 거창한 이름에 대한 선입관이 깨어지는 순간이었다. 정숙한 복장으로 강의를 듣고, 주제 발표를 하고, 시상식이나 할 것이란 생각했었는데, 은근히 걱정되어 영어로 발표하는 연습까지 해 보았었는데, 그런 발표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는 확신에 피식 웃음이 나온다. 물론 강의나 발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사실 강의와 발표보다는 조작업을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러면서 서로를 이해해가던 시간들이 더욱 재미있고 의미 있었던 것 같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고 무던히 노력하던 카즈토미, 인도네시아는 1000여 개의 언어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치카, 건축 대학이 단 한 곳밖에 없는 싱가포르 이지만 그래도 수준은 뛰어나다고 말하던 마니와 토란스, 그리고 시종일관 인도 귀족 같이 팔장 끼고 앉아 주위사람들을 머뭇거리게 하던 댁... 모두가 잊을 수

없는 친구들이고 이번 여행을 통해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하다. 같은 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것일까? 서로 얼굴 바로 보는 것도 어색하던 이들이 '르 꼬르뷔제', '루이스 칸'이란 말이 나오자 다들 눈이 반짝해서 서로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모습이란!

학생 잼버리는 일종의 건축과 학생들끼리 모여서 하는 올림픽 같았다. 각국의 선수들이 와서 각자의 기량을 겨루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각국의 스포츠인들이 서로 교류를 통해 이해하고 화합하는 것이 올림픽의 목적이듯, 학생 잼버리도 건축과 학생들이 모여 토론하고 공모전을 통해 경쟁도 하지만 정작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의미부여 했던 것은 학생간의 친목 도모였다. 다시 말해 아시아 건축과 학생끼리의 M.T라고나 할까?

이 곳에 오기 전 내 나름대로 한국은 아시아 사회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생겼다. 분명 한국의 경제 수준은 아시아의 수위권이지만 그에 비해 아시아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류나 행사에는 크게 기여하고 있지 못하는 것 같다. 이번 행사에서도 사전에 정보가 부족했던 터라 일부 행사에 참가할 수 없었고, 그나마 16개국 중에서 가장 적은 인원이 참여해 '과연 한국이 언론 매체의 선전처럼 '아시아의 핵심'일까?' 의심도 들었다.

행사 3일째, 'ACA 9' 공식 개막식을 마치고 쿠알라룸프 시내 구경에 나섰다. 아자수로 된 가로수와 한국과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자동차들, 모든 것이 새롭지만 역시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단연 쪽쪽 뽀은 고층 건물들. 전공은 속일 수가 없는가 보다. 400여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모두 목을 젓히고 건물을 바라보는 풍경이란... 낮선 행동에 놀라 같이 건물을 올려다보며 두리번 거리는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 더 우습다.

'야 참 많다.' 어렵פות이 잡지에서 읽은 기사가 기억이 났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훌륭한 도시 계획과 건물이 말레이시아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에 세계 유명 건축가들을 초빙하는데 적극적이라. 그래서인지 주위의 건물 하나 하나 예사로운 것이 없다.

'이런 곳에서 건축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좋겠다.' 막연한 궁금증에 말레이시아 학생들을 붙잡고 물어 보았지만 대답은 하나같이 "글쎄?" 칭찬에 인색하고 통명스럽기는 어느 나라 건축과 학생이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뭐니뭐니해도 쿠알라룸프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은 쿠알라룸프 센츨럴 타워가 아닐까? 세계에서 가장 높고, 두 개의 쌍둥이 건물 가운데 하나는 한국 건설회사가 지었다는데 어떻게 안 가볼 수가 있을까? 게다가 시내 어느 곳에서나 보이는데. 웬지 기대치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상했던 외장에, 뭐 그저 높은 건물이었다. 그러나 밤에 우연히 그 곳을 지나가다 보았을 때 남은 인상이란. 몇 개의 빛으로 꾸며진 외관이 마치 날아갈 듯 가볍게 하늘로 솟아 있다. 낮과 밤의 모습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모든 것이 지나가고, 아쉬운 작별만 남았다. 행사 일정보다 하루 먼저 떠나는 우리를 위해 환송회(?)까지 벌여 주었던 친구들, 낯선 외국인들이 어느덧 헤어지기 싫은 친구가 되었다. 서로에게 연락처를 적어주며, 애써 배운 말레이시아 인사 몇 가지를 잊지 않으려고 연신 되풀이 하며 공항에 달았다.

'이제 끝이네!' 습도 높은 무더운 기후라 줄곧 감기에 몸살까지, 고된 5일이었지만 그래도 아쉬움 섞인 큰 숨 한번 쉬어본다. 옆에 앉은 성철이도 "야 빨리 집에 가고 싶다."며 야단이지만 녀석의 속도 그리 편하지 않겠지. 그래도 세상이 변해(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집에 앉아서도 외국 친구들과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에 위로를 느끼며 밀려던 잠을 청해본다.

참 언젠가 행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이 '넌 어째 말레이시아 애들한테 인기가 좋은냐?' 하고 물으신 적이 있다. 그건 "How do you feel about Malaysia?" 말레이시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아이들에게 난 "싸이야 쨌따 말레이시아(저는 말레이시아를 사랑합니다.)" 하고 몰래 배워둔 말레이시아 말로 대답하였고, 의외라는 듯 막 웃으며 "싸이야 쨌따 코리아 두까(나도 한국을 사랑합니다.)" 하고 답해주었던 우리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김형우/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4년) ㉮